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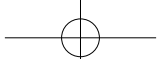
강릉국제영화제 지향점에 관한 고찰

조해진*

– 차례 –

1. 서론
2. 국제영화제 현황
3. 강릉국제영화제 개최 현황
4. 성공적이고 지속가능한 GIFF를 위한 제언
5.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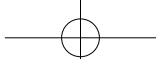
* 가톨릭관동대학교 콘텐츠제작학과 조교수. chfilm@cku.ac.kr



[국문초록]

우리나라는 이제 명실상부한 영화의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황을 반영해 국내에는 크고 작은 영화제가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와 내용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강릉국제영화제(Gangneu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가 국제영화제로서 지향해야 할 지점에 관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영화제의 범위는 너무 넓고 대상 또한 많아서 본고에서 다루는 내용은 국제영화제에 한정하고 이를 통해 강릉국제영화제가 지속가능하면서 성공적인 국제영화제로의 성장하기 위해 가져야 할 지향점을 도출하는 것까지를 본고의 연구범위로 삼는다. 본고에서 국제영화제의 특징과 강릉국제영화제의 개최현황을 살펴본 결과 강릉국제영화제의 지향점을 3가지 부분으로 제시했다. 첫째, 국제영화제로서의 정체성을 구체화해야 한다. 이는 거의 대부분 성공한 국제영화제가 가지고 있는 필수조건이면서 국내외적으로 국제영화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기도 하다. GIFF의 경우, 문학영화제를 표방하고 그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개념의 연장선상으로 ‘원작’이 있는 영화에 대한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둘째, 국제영화제가 지역축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행사장소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GIFF의 경우 그동안 지역의 타축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강릉아트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2021년에는 강릉대도호부관아 주변이 포함되면서 강릉단오제, 강릉야행 등을 비롯한 강릉의 대표 지역축제와 배뉴(venue)를 공유하게 되었다. 셋째, 국제영화제의 전문인력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 점은 비단 GIFF만의 문제가 아니고 행사비용의 상당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는 대다수 국제영화제가 직면한 문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고민과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보다 전문적인 인력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하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주제어: 강릉국제영화제, 국제영화제, 영화제 정체성, 영화제 인력, 지역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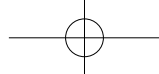
1. 서론

2019년은 한국영화 위상의 정점을 찍은 한해였다. 천만관객을 넘긴 영화가 외국영화를 포함해서 무려 5편이나 나왔으며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2019>이 한국영화 최초로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해 한국영화 100년사에 큰 업적을 남겼다. 이후 2020년에는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으로 전 세계적으로 영화산업은 타산업들과 마찬가지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그 와중에서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2020년 미국 아카데미영화상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등 4개부분에서 수상하며 한국영화의 위상을 또 한번 세계에 알렸다. 다음해인 2021년 같은 영화상에서 배우 윤여정이 여우조연상을 수상함으로써 다시 한번 한국영화의 위상을 세계에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런 예술적 업적과 더불어 2021년 한국영화시장도 점차 회복세에 진입하고 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해 영화진흥위원회는 2021년 6월 10일 오후 부산사옥에서 여러 영화계 전문가들과 함께 코로나19로 촉발된 한국 영화산업의 위기상황을 토로하고 한국영화 발전을 위한 재원확보 필요성을 촉구하는 영화인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블록버스터 혹은 독립·예술영화로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은 한국영화의 다양성 붕괴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영화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기 때문에 영화산업성장을 위해서는 상업영화와 독립예술영화의 고른 성장을 주장했다.¹ 이러한 민·관의 노력과 함께 여러 지표가 말해주듯 우리나라는 이제 명실상부한 영화의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데 이런 현황을 반영해 국내에는 크고 작은 영화제가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와 내용으로 개최되고 있다.

한국영화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1 KOFIC뉴스, <박찬욱 감독 비롯한 한국영화 감독 5인, 한구영화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필요성 토로>, <https://www.kofic.or.kr/kofic/business/noti/findNewsDetail.do?seqNo=46499>, 검색일 2021/ 6/27



국내 영화제는 총 186개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다². 이렇듯 엄청난 수의 영화제가 개최되고 있는 현실에서 영화제와 관련한 연구 또한 언론, 비평, 학문 그리고 1인미디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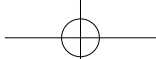
이제까지 영화제와 관련한 주요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김종국은 영화제의 연구경향에 대해 발크와 로이스트의 저서를 인용하면서 6개의 연구영역을 제시했다. 첫째는 영화 미학적 담론의 영역이고 둘째는 제작과 배급에 관련한 경제적 영역이다. 셋째는 사람과 펀딩, 넷째는 관객과 상영, 전문 공공영역이고, 다섯째는 지역이나 국가와 관련한 영화제의 의미를 다루는 영역, 여섯째는 앞의 다섯 가지를 융합하는 영역이다³. 송낙원은 국제영화제의 역사를 3단계로 구분했는데 1단계는 세계 최초의 영화제인 베니스 국제영화제가 설립되었던 1932년부터 1968년 베니스영화제와 칸느영화제의 권위가 누벨바그 등 새로운 영화세대의 도전을 받기 전까지라고 말했다. 2단계는 국제영화제가 내셔널 시네마와 작가주의 영화감독들의 작품들로 채워진 이른바 프로그램이 다변화 되던 1970년대 시기이고 3단계는 국제영화제가 생소했던 미주지역과 아시아지역에 국제영화제가 생겨나면서 대륙별로 차별화된 영화제가 형성된 1980년대에서 1990년대로 구분했다.⁴ 그리고 많아진 영화제의 현실을 반영하듯 개별 영화제에 대한 리뷰와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김정식·곽상원은 영화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분야, 문화콘텐츠분야, 시민참여분야의 3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⁵. 국내에서 가장

2 양지훈 외, 『국제영화제 육성지원 평가지표 개선방안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KOFIC 연구 2021-05, 영화진흥위원회, 2021, 49면.

3 김종국, 「영화제 연구의 경향」,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방송학회, 2014, 201면.

4 송낙원, 「영화제 이론과 평가 방법론에 대한 연구」, 『영화연구(54)』, 한국영화학회, 2021, 200-204면.

5 김정식, 곽상원, 「충북국제무예액션영화제의 가치와 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3(8), 한국엔터테인먼트학회, 2019, 309-310면.



권위있는 부산영화제와 관련한 연구도 비교적 풍부한데 정성아에 의하면 영화제와 관련한 연구들은 대체로 역사, 정체성, 영상산업, 장소성, 발전방향, 지역 활성화 방안 등 6개 분야로 나눌 수 있다.⁶ 김지후는 국내 3대 국제영화제의 개최목적과 정체성을 살펴보고 실제 운영내용을 파악했는데 그에 의하면 부산은 개최 목적과는 다른 화제성 강한 상영색선이 다수 존재함을 밝혀 영화제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부정적인 내용의 운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천영화제 또한 장르영화제라는 목적과 달리 작가주의 영화를 확대하면서 장르영화매니아층의 지지를 잃었음을 밝혔다. 다만 전주영화제의 경우 오랫동안 지켜온 독립과 대안이라는 정체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⁷

이런 연구경향과 내용을 충분히 견지하면서 본고는 강릉국제영화제(Gangneu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이하 GIFF)가 국제영화제로서 지향해야 할 지점에 관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영화제의 범위는 너무 넓고 대상 또한 많아서 본고에서 다루는 내용은 국제영화제에 한정하고 이를 통해 GIFF가 지속가능하면서 성공적인 국제영화제로 성장하기 위해 가져야 할 지향점을 도출하는 것까지를 본고의 연구범위로 삼는다. 이를 위해 먼저 연구보고서, 산업통계, 관련 저서 등 국내외 문헌자료를 조사하고 이어서 GIFF의 내부자료, 언론자료, 각종 영화단체 및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검색을 진행한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GIFF 관계자들과의 집중 인터뷰 등을 통해 내부의견 및 자료를 살펴 본 후 GIFF가 마주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점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GIFF가 나아갈 방향성과 과제에 대해 제언하는 것까지를 본고의 연구범위로 삼는다.

6 정성아, 「부산국제영화제의 마케팅과 활성화를 위한 축제의 현재와 미래적 방향에 관한 연구」, 『글로벌 창의문화연구』 4, 극로컬창의산업연구센터, 2015, 57-72면.

7 김지후, 「개최목적으로 본 한국 국제영화제 정체성 분석」, 『영상문화콘텐츠연구』 17, 동국대학교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2019, 34면.

2. 국제영화제 현황

2.1. 국제영화제 기준

국제영화제를 규정하는 기준은 나라와 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27개국의 34명의 프로듀서들로 조직된 국제영화제작자협회(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Associations de Producteurs de Films, FIAPF)의 기준과, 유럽영화제위원회(European Coordination of Film Festivals;ECFF) 그리고 영화진흥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살펴보겠다.

먼저 FIAPF의 경우,⁸ 국제영화제의 기준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데 그 기준을 보면 아래 <표 1>와 같다.

<표 1> FIAPF가 규정하고 있는 국제영화제의 조건

번호	내용
1	연중 상시 조직 구성 Good year round organisational resources
2	국제적으로 공인된 심사위원단 구성 Genuinely international selections of films and competition juries
3	세계 모든 언론인들에게 좋은 편의시설 제공 Good facilities for servicing international press correspondents
4	영화의 도난 및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엄격한 조치 Stringent measures to prevent theft or illegal copying of films
5	지역 영화산업 지원에 대한 증빙 Evidence of support from the local film industry
6	영화필름의 도난, 분실 등에 대한 보험 가입여부 Insurance of all film copies against loss, theft or damage
7	수준 높은 공식 출판물과 정보제공(카탈로그, 프로그램, 전단지) High standards for official publications and information management(catalogue, programmes, fliers)

출처: FIAPF 홈페이지, <http://www.fiapf.org/intfilmfestivals.asp> (검색일 2021/6/20)

8 국제영화제작자협회(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Associations de Producteurs de Films, FIAPF)는 27개국 34개 제작사 조직을 거느리고 있고 5개 대륙의 영화와 TV 제작 산업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제적, 법적, 규제적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유일한 기구임을 홈페이지에서 밝히고 있다. -<https://covid.fiapf.org/>(검색일 2021/6/20)

FIAPF의 기준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유일하게 국제영화제로 인정받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도쿄국제영화제(Toky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외에는 국제영화제로 인정받는 국제영화제가 없다는 점은 FIAPF가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걸 말해준다.⁹

다음으로 유럽영화제위원회(European Coordination of Film Festivals;ECFF)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유럽영화제위원회(ECFF)의 일반 영화제 기준

구분	내용
주최	-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조직 (independent and autonomous entity)에 의해 개최
행사 기간	- 일정 기간(5-12일) 상영
보험	- 필름 프린트 훼손 등 위험에 대비한 보험 가입
프로모션	- 보도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은 각 영화 소개 사진, 슬라이드, 보도자료 등 수집
프로그래밍	- 모든 출품작 상영 시간대, 극장 형태, 상영 횟수의 동등한 배분 - 출품 감독들의 동등한 초청 및 리셉션 혜택 - 저작권자의 별도 동의가 없는 경우 장편 최대 3회, 단편 최대 4회 상영 - 영화감독 및 영화 전문가들의 조직적 토론
심사위원	- 영화 전문가, 영화 예술가 포함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 - 국제영화제의 경우 최소 50%의 외국인 심사위원 포함 - 심사 사례비 지급 불가 - 하루 3편 이상 장편 영화 심사 불가
관객 통계	- 가능한 많은 관객 동원 - 정확한 관객 수 집계(유료관객, 무료관객, 학교상영 및 특별상영 등)

출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제영화제 평가 및 향후 발전방안』, 2004, 22면

ECFF가 FIAPF의 경우와 가장 큰 차이점은 프로그램에 대해 많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프로그래밍 부분에서 제시하고 있는 극장형태, 상영 횟수, 리셉션, 토론 등의 구체적인 프로그램 제시는 국제영화제가 국제이벤트로서 가져야 할 위상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9 FIAPF, “FIAPF-Joint-Paper_Why-Film-Festivals-Matter”, FIAPF, 2020, p.3.

우리나라의 경우, 영화진흥위원회는 국제영화제를 지원하고 있지만 국제영화제와 관련해서 명시적으로 국제영화제를 규정하고 있진 않고 있다. 다만 현재 시행중인 국제영화제 육성지원사업에서 보여주고 있는 기본요건을 살펴봄으로서 국제영화제의 규정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은 아래 <표 3>와 같다.

<표 3> 한국영화진흥위원회 국제영화제 지원 기준

번호	내용
1	법인으로 등록된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있어야 함
2	직전년도까지 일정 횟수, 일정기간 이상 개최되어야 함
3	직전년도 3개년 기준 국제영화제는 20개국 70편 이상, 중소규모 국제영화제는 10개국 50편이상 상영해야 함
4	외국어영화 한국어자막, 한국영화 영어자막이 기본 제공되어야 함
5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상근인력이 근무하고 있어야 함
6	사무실 및 홈페이지를 운영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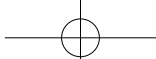
출처: 한국영화진흥위원회, 『국제영화제 육성지원 평가지표 개선방안 연구』, 2021, 31면

영화진흥위원회가 FIAPF와 ECFF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영화의 편수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과 번역된 자막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규모와 대상을 국내가 아닌 국제라는 점을 명확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여진다.

위에서 살펴본 국제영화제의 기준이 고정불변하거나 모든 국제영화제의 규범적 요소는 아닐 것이다. 다만 권위 있는 기관과 조직에서 규정하는 필수요소를 살펴봄으로서 국제영화제가 가져야할 최소기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2.2. 해외 주요 국제영화제 현황

잘 알려진 것처럼 세계 3대 영화제는 베니스(Venice), 칸느(Cannes), 베를



린(Berlin) 영화제를 가리킨다. 이 3대 영화제는 탄생배경, 주요 이슈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 3대 영화제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국제영화제가 가져야 할 내용과 특징을 보다 자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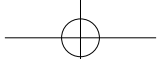
가장 오래된 국제영화제인 베니스영화제의 경우 1932년, 영화가 지닌 강력한 선전선동 능력을 간파한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정권이 만들어 낸 하나의 정치 이벤트였다. 초반에는 격년마다 열리는 베니스 비엔날레의 일환으로 시작했으나 193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정치적 이벤트로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현재는 전통을 바탕으로 예술적 가치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세계적인 권위의 영화를 경쟁부문에서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¹⁰

1946년에 처음 개최된 프랑스의 칸느영화제는 파시스트 정권이 출범시킨 베니스영화제에 대항하는 성격으로 서방세계의 연합과 지지속에서 출발했다. 1939년 제1회 영화제를 개막하려 했지만 독일의 전쟁 개시로 영화제는 연기되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6년에 처음으로 개최할 수 있었다. 전쟁의 혼란함과 더불어 1968년에 개최된 영화제는 프랑스 누벨바그의 주역인 장 뤽 고다르, 프랑소와 트뤼포 등에 의해 영화제가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 때부터 프랑스 영화는 보다 예술적인 경향으로 흘러갔는데 이 영향으로 그 다음해인 1969년에 감독주간(Quinzaine des Realisateurs)이 신설되어 좀 더 진보적이고 예술적인 작품을 선보이고자 했다.¹¹ 이로부터 칸느의 예술적 경향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칸느영화제가 예술적 관심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영화산업의 발전에 매우 큰 기여를 한 사실도 분명한 특징이다. 세계 3대 영화 중 가장 먼저 필름마켓을 실시하였고 지금도 칸느영화제는 전 세계 영화산업의 발전을 목표로 한다고 뚜렷하게 명시하고 있다.¹²

10 베니스영화제 홈페이지, <https://www.labiennale.org/en/history-venice-film-festival> (검색일 2021/6/28)

11 안수정, 『레드 카펫: 웰컴 투 페스티벌』, 명인문화사, 2014, 101-102면.

12 칸느영화제 홈페이지, <https://www.festival-cannes.com/en/qui-sommes-nous/festival-de-cannes-1> (검색일 2021/6/28)



3대 영화제 중 가장 늦게 출발한 베를린영화제(Berlinale)는 전쟁 이후 분단 상태인 독일의 통일을 염원하는 의미로 1951년 개최되었다. 매년 2월 중순 개최되는 이 영화제는 뉴저먼시네마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독일의 예술성을 강조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유럽 전역에서 일어난 새로운 영화에 대한 갈망으로 시작한 뉴저먼시네마는 오보하우젠 선언으로 구체화 되는데 베를린 영화제는 신인들을 위한 독일영화전망(Perspektive Deutsches Kino) 부문에서 매년 도전적이고 신선한 영화신인들을 발굴해 내고 있다. 격렬한 전쟁 후에 만들어진 분단된 도시라는 독특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베를린영화제는 사회문제에 대한 영화적 탐구로 이어졌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 영화산업에 수많은 이니셔티브를 제공해서 독일뿐만 아니라 세계영화산업의 혁신과 경제적인 성과를 지원하고 있다¹³.

위에서 간략히 살펴본 것처럼 모든 영화제가 정치적 의미를 함유한 채 탄생되었다.¹⁴ 하지만 영화제들은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지금은 세계영화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경제적인 성과 또한 매우 크다고 하겠다. 세계 3대 영화제의 시작배경과 현재까지 이어지는 영화제의 개최배경, 목적, 현황을 살펴보는 일은 국제영화제에 대한 성격을 분명히 이해하고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13 베를린영화제 홈페이지, <https://www.berlinale.de/en/festival/profile/festival-profile.html> (검색일 2021/6/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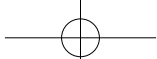
14 이런 사실은 국내의 국제영화제의 개최와도 무관하지 않다. 지역에서 개최되는 대부분의 국제영화제가 지자체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알 수 있듯이 지자체의 정책방향, 정권의 성향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7년 부산국제영화제의 경우인데 이처럼 문화행사에 정치적 영향력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과제라 보인다. 영화제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과 영향력 행사 등과 관련한 논의는 향후 심도 있게 이어져야 할 과제라 하겠다.

2.3. 국내 주요 국제영화제 현황

세계 3대 국제영화제가 있다면 국내에도 3대 국제영화제가 있다. 부산국제영화제, 부천판타스틱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가 그것들이다. 1996년 9월 13일에 처음 개최된 부산국제영화제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 국제영화제다. 부산국제영화제는 ‘2020부산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부산시의 자매결연 도시를 위한 ‘아시안워크’라는 프로그램의 하나로 기획되었다.¹⁵ 앞서 전술한 세계 3대 영화제와 유사하게 영화자체가 목적인 행사였다기보다는 영화가 다른 목적의 수단이 된 셈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점이 부산영화제가 초창기에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했다. 지속적인 부산시의 지원으로 재원에 대한 염려가 없었고, 유일하게 영화검열의 예외를 인정받아 삭제되지 않은 온전한 영화를 볼 수 있는 해방구이기도 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개최된 바로 다음해에 시작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The Bucheon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르영화를 위한 영화제를 표방한 국내 유일의 국제영화제이면서 부천시의 지원을 받고 있는 영화제다. 대개의 영화제가 기존의 문화질서에 대한 저항과 반감을 표면에 내세웠던 것처럼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도 기존의 장르에 비해 하위, 비주류로 인식되었던 ‘판타지장르’를 내세우면서 영화제의 정체성을 확립하려 했다. 첫 해 개최목적이 ‘국내 최초의 판타스틱 장르영화제를 표방하면서 예술영화중심이 아니라 관객이 즐길 수 있는 영화제’였지만 영화제의 내용은 목적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어 2015년에서 2017년도에는 관객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장르에 대한 해석이 분명하지 않음에서 기인한다. 비록 장르가 자의적 해석에 기반한다 하더라도 장르라는 용어엔 일반성, 대중성, 기대가능성 등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등에서 영화제를 소개하는 내용에 ‘이상한’, ‘비주류’, ‘하위문화’ 등등의 용어가 자주 발견되는 현상은 심도 있게 논의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상반된 이중성은

¹⁵ 안수정, 앞의 글, 189면.



스스로 영화제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고 이에 대한 고민이 매우 필요하다.¹⁶ 그리고 판타스틱 장르가 이전엔 하위문화, 비주류로 판단 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SF영화가 오히려 대세가 되고 주류가 된 현실을 고려할 때 판타지장르에 대한 분명한 개념정립은 영화제의 정체성을 위해서도 논의가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국내 3대 국제영화제 중 가장 늦게 출발한 전주국제영화제는 ‘대안(Alternative), 디지털(Digital), 독립(Independence)’이라는 비교적 뚜렷한 주제의식을 표방한 영화제다. 유창석과 원도연에 의하면 3개의 주제 중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대안’인데 그들은 전주국제영화제가 기존의 상업적 영화에서 저항하고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한 문제에 주목하면서 부산국제영화제와 부천판타스틱영화제와의 차별성을 뚜렷이 하는 대안적인 영화제임을 주장했다.¹⁷ 따라서 기존의 영화에서는 다소 보기 힘든 영화문법의 영화들을 포함하여 낯설고 신선함이 강조된 영화들을 볼 수 있다. 이 점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어 영화제의 정체성이 타 영화제에 비해 강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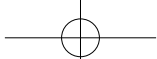
3. 강릉국제영화제 개최 현황

3.1. 개최 배경

GIFF는 올림픽 유산의 생산적 활용, 국제적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연계관광이 가능한 풍부한 문화자산 및 자연환경 활용, 한국문화의 세계적 선도를 위

16 김지후, 앞의 글, 20-21면.

17 유창석, 원도연, 「전주국제영화제의 주제의식과 콘텐츠 변화 연구」, 『인문콘텐츠』 41, 인문콘텐츠학회, 2016, 221면.



해 추진되었다.¹⁸ 국제영화제로서의 독창적 정체성을 모색하던 추진위원회는 초기에는 문학작품이 원작인 영화를 대상으로 하는 ‘강릉국제문학영화제’로 영화제명을 정하고 국제영화제를 추진하던 중 여러 차례 토론회와 의견수렴을 한 결과 국제영화제의 외연을 확장한다는 의미에서 ‘GIFF(GIFF:Gangneu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로 행사명을 확정지었다.¹⁹

GIFF의 개최목적을 살펴보면 첫째, 문학 중심의 도시인 강릉을 가장 현대적인 문화인 영상문화 중심 도시로 확장을 목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런 연장선 상에서 GIFF는 문학과 영상을 접목하는 행사를 지향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둘째, 문향 강릉지역의 문화예술의 가치와 더불어 지역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메가이벤트로서 GIFF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예로부터 문향의 도시로 알려진 강릉의 문화적 자산과 함께 바다, 산, 호수, 강이 어우러지는 천혜의 자연환경은 올림픽의 도시라는 국제성과 더불어 대규모 행사를 치르기에 적합하다는 판단에서 시작되었다. 셋째, 글로벌 도시로서 강릉시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강릉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고자 하는 바램이다. 이미 올림픽을 통해 국제화의 가능성을 체험한 강릉시가 GIFF를 통해 본격적인 도약을 시도하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3개의 분명하고 명시적인 목적을 갖고 출발한 GIFF는 2019년 11월 8일, 강릉아트센터에서 개막식 행사를 진행하면서 본격적으로 국제영화제의 시작을 대내외에 알렸다.

3.2. 현황

2019년에 처음 시작한 GIFF는 10일간의 일정이 원칙이었지만 2020년에 불어닥친 전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병으로 인해 2회 행사는 3박4일의 짧은 일정만 소화한 채 막을 내렸다. 그리고 2021년 현재 10월 23일에서 31일

18 정미숙 외, 『GIFF 평가보고서』, 강릉시청, 2020, 14면.

19 GIFF 조직위원회 내부자료

에 걸친 10일간의 행사를 본격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그간의 행사연혁을 살펴 보면 <표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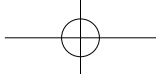
<표 4> GIFF 개최현황

주요프로그램명		
2019년	2020년	2021년(예정)
개막식	개막식	개막식
영화상영	영화상영	영화상영
국제포럼	국제포럼	국제포럼
마스터 클래스	스페셜토크	마스터클래스
시네라이브	영화제스케치	스페셜토크
추모행사	배롱야담	배롱야담
스페셜 토크	국제경쟁 (상영/시상)	국제장편경쟁 (상영/시상)
강연	단편영화 제작지원 (상영/ 시상)	단편영화 제작지원 (상영/ 시상)
워크숍	관객과의 대화	관객과의 대화
VR라운지		시네라이브
한국영화 100주년 기념 100*100 영상		학술포럼
스페셜 콘서트		세미나
영화음악이 있는 시네포차, 경포포차		지역영화아카데미

야심차게 출발한 1회와 달리 2회는 코로나19로 대폭 축소되었다. 영화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영화제라는 특성상 공식적으로 GIFF는 행사가 축소되었을 뿐 온라인개최는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국제포럼’을 제외한 모든 행사가 대면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온라인개최가 아니라는 주장은 일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국제포럼’ 행사가 해외의 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들이 보내 온 영상을 바탕으로 국내 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들이 무대에서 저마다의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로 진행된 행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된 형태여서 특징적인 모습을 보였다.

3.3. 개최결과 분석

GIFF의 제 1회 행사에 대한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영화관람에 222,77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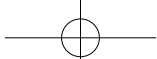


전시관람에 7,740명, 시네포차 등 영화제 프로그램에 단순 참가한 방문객이 49,726명으로 집계되어 총 80,245명이 제 1회 GIFF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총 131회차 상영에서 24회차가 매진되었으며 해외게스트가 14개국에서 총 37명이 참석해 국제영화제의 위상을 보여주었다. 1회 행사의 내용로서는 성공적인 수치를 보여주었다고 하겠다.

객관적인 정량수치 결과와 더불어 자생력 확보, 국내외 영화제작의 프리프러덕션 시스템 구축, 지역공간의 활용, 전문인력양성, 기존의 축제와 연계의 필요성과 같은 5개의 해결과제도 제시되었다.²⁰ 먼저 자생력 확보의 경우, 재원의 조기확보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비단 GIFF만의 과제라 볼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거의 모든 국제영화제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과제는 전문인력양성과 함께 비단 GIFF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국제영화제의 숙명적이고 태생적인 과제라 하겠다. 이와 관련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GIFF만의 특징적인 과제로 프리프러덕션 시스템 구축, 지역공간의 활용, 기존 축제와의 연계 등 3개의 과제가 제시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여겨 볼만한 과제가 바로 프리프러덕션(Pre-Production) 시스템 구축이다.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GIFF를 계기로 강릉지역을 영화제작의 프리프러덕션의 메카로 만들자고 주장하면서 국내외 영화인들의 레지던스 공간 구축, 지역문화 소재 개발 플랫폼 구축, 시나리오 공모와 시나리오 마켓 구축의 3개의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GIFF가 문학영화제, 원작영화제를 표방한다는 점에서 매우 일리 있는 주장이다. 지역공간의 활용과 지역축제와의 연계는 영화제를 지역축제로 볼 때 매우 설득력이 있으면서 시급히 해결하고 추진해야 할 과제다. 잘 알려진 것처럼 강릉지역은 강릉단오제, 명주인형극제, 커피축제, 강릉야행 등 연중 크고 작은 축제가 열리는 특징적인 지역이다. 이런 축제를 아우르고 관리하고 지원하는 행정시스템과 민간참여조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논의도

²⁰ 정미숙 외, 앞의 책, 98면.



향후 심도있게 진행되어야 하겠다.²¹

4. 성공적이고 지속가능한 GIFF를 위한 제언

4.1. 정체성 확립

국제영화제가 문화를 목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경제를 목적으로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과거에도 지금에도 여전히 활발히 진행 중이다. 영화제가 그 자체로 목적인지 아니면 수단으로 역할 하는 건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는 이런 논의는 결국 이 두 가지 견해가 서로 별개의 것으로 볼 일이 아니라 융합되고 결합된 형태의 행사로 보는 것이 국제영화제를 바라보는 적절한 시각일 것이다. 어떤 목적을 가졌더라도 국제영화제는 그 자체로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도시의 이미지와 더불어 도시의 브랜드를 구축하는데도 매우 큰 도움을 준다. 이는 지역에 큰 호텔을 건설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지역축제로서 국제영화제는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과 함께 축제를 조직하거나, 행사에 참여하거나, 단순히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도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면서 문화적 가치를 확장시킨다.²² 따라서 국제영화제의 정체성의 도시브랜드와 지역주민들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더군다나 국제영화제의 성공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김지후에 의하면 국제영화제의 정체성은 영화제를 판단하는 질적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영화제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두 가지 요소인 영화제 개최목적과 이를 반영한 프로그램의 운영은 경쟁력 있는 영화제의 필수 조건이다.²³

21 2회 행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결과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2 Jodi George, "Examining the cultural value of festivals Considerations of creative destructon and creative enhancement within the rural enviro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Event and Festival Management, 2015, p.132.

23 김지후, 앞의 글, 3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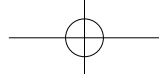
〈표 5〉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제영화제의 정체성과 관련한 평가항목은 목표, 사업개요, 프로그램으로 특정되어 있다.

〈표 5〉 국제영화제 지원신청을 위한 사전 요건 및 계획서 내용

구분	내용
영화제 정관	영화제 별도 법인 여부
	집행위원회 설치 의무화
	집행위원장의 권한 및 임기 규정
	사무국의 기능, 지위에 대한 규정
영화제 개최 계획서	목표(구체적 목적 및 슬로건)
	사업 개요
	프로그램
	부대 행사
	조직 운영
	인력 관리
	예산 계획
	안전 및 서비스 사항
	중장기 발전 방향

문학영화제를 표방하면서 출발했지만 외연확장을 꿈꾸며 GIFF로 명명하면서 출발한 GIFF는 ‘영화와 문학’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문학과 관련되거나 문학을 유추하거나 의식할 만한 내용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경쟁부분과 비경쟁부분 모두 ‘시나리오가 있는 영화’라면 출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거의 모든 영화가 출품대상의 자격을 가지기 때문에 GIFF만의 특징이라 볼 수 없다. 이는 GIFF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다

영화제의 가장 구체적인 정체성을 표방하는 사례는 2015년까지 총 6회에 걸쳐 개최되었던 과천국제SF영상축제와 제 7회 행사부터 SF영화제로 변모한 춘천영화제가 있다. 특히 과천국제SF영화축제의 경우 국제영화행사를 개최하는 이유로 ‘과학에 대한 흥미유발과 이공계 기피 현상을 타개하며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맞춰 창의적 인재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SF 에듀테인먼트 프로그램으로서의 기획을 통해 미래를 이끌어 나갈 창의적 인재 양성과 미래 신성장 SF콘텐츠 산업 육성의 바탕이 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자 함'이라고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²⁴ 또 다른 사례는 2020년에 제 2회 개최를 한 충주국제무예액션영화제다. 지속가능한 영화제로서의 정체성을 위해 장르영화의 한 갈래인 무예액션영화를 표방하면서 영화제의 고유한 색깔을 가지고 한중일은 물론이고 동남아와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국제영화제를 추구하고 있다. 이들 국제영화제는 영화제를 특수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겠다는 주최측의 의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 구체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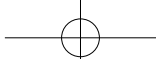
사례로 든 두 국제영화제들의 경우 국제영화제의 규모와 범위의 측면에서 어쩌면 지나치게 협소하고 제한적이라는 느낌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GIFF가 추구해야 할 정체성의 범위도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정체성의 구체성은 기획에 있어서 구체적인 목적, 대상, 사업범위, 결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대부분 나라와 조직에서 국제영화제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미루어볼 때 GIFF가 '문학'과 관련한 영화제를 표방하면서 그 정체성을 뚜렷이 하기 위해서는 '원작'과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문화콘텐츠의 관점에서 보면 원작은 전환작을 위한 매우 중요한 원천 콘텐츠다. 그리고 영화는 원천콘텐츠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콘텐츠다. 시대의 변화함에 따라서 문학의 범주를 소설, 기록, 만화, 전설, 게임으로까지 확장시킨다면 문학영화제를 표방한 GIFF의 외연확대는 물론이고 정체성을 확보하면서 대중적인 관심 또한 불러 올 수 있을 것이다.

4.2. 전략적 배뉴(Venue) 설계를 통한 지역주민 및 방문객 만족도 제고

도시브랜드란 도시가 가지는 다양한 환경, 기능, 시설, 서비스 등에 의해 다른 도시와 구별되는 상태로써 일반적으로 외부의 인지도와 도시인상을 의미한다. 또한 내적으로 지역발전의 동기부여 및 주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

24 김태형, 『국제SF영상축제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국립과천과학관, 2011, 31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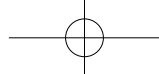


또한 외적으로는 다른 도시들과의 식별 및 차별화를 통해 도시의 긍정적인 이미지들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만드는 상징적 체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도시에 사는 사람이 도시에 대한 애정을 가지게 되고 자긍심을 느낄 때 비로소 도시 브랜드에 대한 초석이 마련되는 것이며 이를 외부인이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될 역사, 정치, 경제와 같은 실질적인 관련 요소들이 중심이 되어야 하기는 하지만 이미지의 시대, 스타일의 시대에 어울리는 디자인 되어진 도시가 각광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역사적 유물이나 관광지가 있어 오래전부터 주목을 받아오던 도시보다는 상대적으로 문화적 빈곤으로 관심 밖에 있는 도시들로부터 브랜드화가 더욱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었다.

거기에 더해 국가의 브랜드 파워 중 중요시 되는 또 하나의 부분은 이미지 파워이다. 그 국가가 가지는 본래의 것과 다르거나 상반된 이미지를 그 국가의 것처럼 포장하거나 변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과거 헐리우드가 영화라는 수단을 통해 땅을 빼앗겨 고통 받는 인디언보다 카우보이에 더 열광했던 것도 사실 이러한 이미지 파워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결국 원하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홍보활동, 기업의 홍보활동, 개인적 접촉, 매스미디어를 통한 중재 그리고 국가 간의 협력관계와 같은 요인들이 필수적이다. 이런 요인들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협업할 때 비로소 브랜드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²⁵

국제영화제도 이런 흐름과 맞물리면서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198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국가보다는 글로벌 도시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각 국가를 대표하는 경향을 띠었던 국제영화제는 점차 국가보다는 영화제를 개최하는 도시의 정체성과 궤를 같이하는 도시형 영화제로 변화했다. 이 때부터 국제영화제를 개최하는 도시의 브랜드는 곧 영화의 정체성과도 연계되었다. 선댄스영화제, 부산영화제, 칸영화제는 더 이상 미국, 한국, 프랑스를 대표하는 영화제가 아니라 솔트레이크시티, 부산, 칸을 대표하는 영화제가 된 것이

25 조해진, 「도시브랜드와 문화기술」, 임영문화, 2017, 17면.



다.²⁶

국제영화제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의 동인은 참가자 수만큼이나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참가의 목적을 크게 나뉘보면 11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영화배급, 관객동원, 유대감 형성, 상금 수상, 영화상 수상, 성공기회, 미디어 홍보, 파티, 영화관람, 여행이 그것들이다. 이 중 이 장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은 여행이다. 영화제를 찾는 많은 관람객은 영화를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영화제가 열리는 도시는 물론이고 도시주변을 돌아다니길 좋아한다. 특히 영화관계자일 경우는 영화제작비에 영화제참여비용을 포함시키면서 영화제를 영화만들기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기도 한다. 영화관계자가 영화제가 열리는 도시를 방문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역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 도시에서 얻은 영감과 추억이 영화관계자들의 다음 영화의 소재나 촬영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해외에서 온 관계자들일수록 더욱 그러한 경향을 가질 수 있다.²⁷ 특히 국제영화제가 한 도시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이자 관광상품이며 지역주민들의 주요 경제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에드먼튼 국제영화제(Edmonton International Film Festival)의 경우 영화제의 궁극적인 목적이 ‘에드먼튼 국제영화제를 모르는 지역주민이 한 명도 없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할 만큼 지역주민과의 밀착도는 매우 높다.²⁸

GIFF의 경우 크게 봐서 도시의 3개 구역에서 영화제가 진행되는데 1회 행사의 경우 메인장소는 강릉아트센터, 주요 극장인 CGV강릉 그리고 각종 부대행사가 열리는 라카이샌드파인리조트 일대였다. 하지만 2021년 제 3회 행사부터는 강릉대도호부관아와 그 주변의 작은극장 단과 명주예술마당 등으로 확장되면서 보다 집중적인 배뉴가 구축되었다. 강릉대도호부관아는 역사적인 문화재로 강릉지역의 크고 작은 지역축제가 열리는 명실상부한 문화의 중심지역이

26 안수정, 앞의 책, 27면.

27 Christopher Holland, “Film Festival Secrets: The Ultimate Handbook for Independent Filmmakers”, Christopher Holland, 2020, pp.26-29.

28 Jon Gann, “So You Want to Start a Film Festival: Conversations with Top Festival Creators”, reel plan, 2015, p.43.

다.

강릉은 연중 크고 작은 지역축제가 지속적으로 열리는 축제의 도시다. 이런 환경에서 개최되는 GIFF는 이런 환경을 고려하여 타축제와 필수적으로 협업을 해야 한다. 강릉단오제, 강릉야행, 강릉커피축제 등 대외적으로 잘 알려진 규모가 큰 행사들과의 협업은 강릉이라는 도시브랜드 형성에 매우 중요한 일인데 이들 대부분의 행사들은 강릉대도호부관아를 중심으로 열린다. 따라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행사장 위치를 구축하여 GIFF의 행사를 진행한다면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방문객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행사가 될 것이고 종국에는 강릉의 도시브랜드 형성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4.3. 영화제 스태프 처우개선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국제영화제가 지속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선 조직과 인력이 필수적이다. 국제영화제작자연맹에서도 국제영화제로 인정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영화제를 위한 상시조직을 꾸리고 있고, 한국영화진흥위원회에서도 국제영화제를 지원하기 위한 조건으로 ‘법인으로 등록된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를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상설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선 상시 근로자가 반드시 필요한데, 국내 국제영화제의 경우 상시 인력이 아래 <표 6>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표 6> 국제영화제 조직의 인력 구성²⁹⁾

국제영화제	법인형태	상시근로자 수	정규직 구성
부산국제영화제	사단법인	90	정규직 30명
부천판타스틱영화제	조직위원회	30	무응답
전주국제영화제	사단법인	23	정규직 23명

²⁹⁾ 전화 설문조사, 조사일 2021/06/09

강릉국제영화제	사단법인	33명	정규직 0명 위촉직 2명 파견직 2명
---------	------	-----	----------------------------

〈표 6〉에서 보듯 GIFF의 인력구성은 매우 열악한 편이다. 지속가능하면서 발전하는 국제영화제가 되기 위해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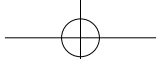
2018년 11월에서 12월에 걸쳐 진행되었던 근로감독의 결과에 따르면 부산 국제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DM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3대 국제영화제가 모두 포함되었는데 그 중 부산 국제영화제가 체불임금 규모가 가장 컸다.³⁰ 이는 사회전반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후진적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국제영화제는 미국형 모델과 달리 유럽형 모델을 취하고 있다. 이는 전체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모델과도 유사한데 미국은 기업주도형이고 유럽은 정부주도형인데 우리나라는 대체로 유럽처럼 정부주도형 진흥모델을 취하고 있다. 국제영화제도 예외가 아니어서 우리나라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부터 유럽형 모델을 도입했고 이후 다른 영화제들도 이 모델을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다.³¹ 이 두 유형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무의미하지만 모델에 따라 인력구성과 이에 따른 사업진행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먼저 정부주도형인 유럽형 모델의 경우, 안정적인 재원을 법률에 의해 구체화 하지 않을 경우 이어지는 행사의 성패는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지원에 대부분 의존하는 국내 국제영화제들에 대한 지원책이 법률로 규정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엔 영화제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는 물론이고 채용에까지 문제가 된다.

GIFF의 경우 처음에는 강릉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로 출발해서 2020년 8월에 본격적으로 사단법인을 구성해서 독립기관으로 등록되었다. ‘사단법인 강

30 황동미 외, 『영화제 스태프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19, 9면.

31 위의 글, 2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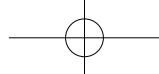


릉국제영화제'로 2번째 맞이하는 2021년 현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까지 정규직 직원이 없다. 이는 향후 GIFF가 본격적인 국제영화제로서의 도약을 위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다. 영화제근로자의 제대로 된 근로환경 또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향후 정규직 직원들을 확보한 후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다. 적정 인건비 확보를 위한 예산 설계, 영화제의 직무역량을 고려한 인력을 구성, 근로자들의 지속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진행이다. 이와 관련한 논의는 차후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5.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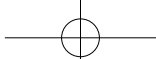
국제영화제는 영화인들과 영화관객을 위한 행사에서 나아가 지역과 지역브랜드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행사다. 지중해의 작은 도시인 칸느는 국제영화제로 인해 한 도시가 세계인에게 알려졌고 매년 이 행사를 통해 지역의 경제 또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캐나다의 에드먼트 역시 작은 도시지만 국제영화제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명소가 되었다. 이렇듯 국제영화제는 영화의 발전과 확산은 물론이고 지역의 문화, 경제 그리고 브랜드로서 이미지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2021년에 제 3회 행사를 치르는 GIFF의 성장과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GIFF가 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본고는 국제영화제가 고민해야 할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국제영화제로서의 정체성을 구체화해야 한다. 이는 거의 대부분 성공한 국제영화제가 가지고 있는 필수조건이면서 국내외적으로 국제영화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기도 하다. GIFF의 경우 문학영화제를 표방하고 그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개념의 연장선상으로 '원작영화제'를 제안했다. 이와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겠다. 둘째, 국제영화제가 지역축제로 역할 하기 때문에 행사장소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GIFF의 경우 그동안 지역의 타축



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강릉아트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2021년에는 강릉대도호부관아에서 개막식을 열기로 해 강릉단오제, 강릉야행 등을 비롯한 강릉의 대표 지역축제와 배너를 공유하게 되었다. 강릉대도호부는 강릉의 문화와 관광의 중심지 역할을 충분히 할 만하고 그 주변은 영화관, 공연장 등을 비롯하여 문화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도 될 만큼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략적 배뉴설계를 통한 GIFF의 진행은 본 행사는 물론이고 강릉의 도시브랜드 구축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는 국제영화제의 전문인력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 점은 비단 GIFF만의 문제가 아니고 행사 비용의 상당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는 대다수 국제영화제가 직면한 문제다. 따라서 자생력을 갖기 위한 고민과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보다 전문적인 인력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근무하는 환경을 마련해야 하겠다. 이상으로 살펴본 GIFF의 지향점에 대한 논의는 보다 폭넓게 이루어져서 향후 100년을 기대하는 국제영화제로의 성장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겠다.

본고는 국제영화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강릉국제영화제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논의를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국내의 국제영화제가 거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경제와도 밀접한 영향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이와 관련한 논의는 후속 연구과제로 남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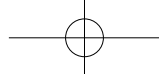
[참고문헌]

■ 단행본

- 김태형, 『국제SF영상축제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국립과천과학관, 2011. 31면.
- 안수정, 『레드 카펫: 웰컴 투 페스티벌』, 명인문화사, 2014, 27, 101-102면.
- 양지훈 외, 『국제영화제 육성지원 평가지표 개선방안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KOFIC 연구 2021-05』, 영화진흥위원회, 2021. 119면.
- 정미숙 외, 『GIFF 평가보고서』, 강릉시청, 2020, 14면, 98면.
- 황동미 외, 『영화제 스태프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19, 9면, 22면.
- Christopher Holland, “Film Festival Secrets: The Ultimate Handbook for Independent Filmmakers”, Christopher Holland, 2020, p.43.
- FIAPF, “FIAPF-Joint-Paper_Why-Film-Festivals-Matter”, Fiapf, 2020, p.3.
- Jon Gann, “So You Want to Start a Film Festival: Conversations with Top Festival Creators”, reel plan, 2015, p.132.

■ 논문

- 김경식, 광상원, 「충북국제무에엑션영화제의 가치와 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3(8)』, 한국엔터테인먼트학회, 2019, 309-310면.
- 김종국, 「영화제 연구의 경향」,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방송학회, 2014, 201면.
- 김지후, 「개최목적으로 본 한국 국제영화제 정체성 분석」, 『영상문화콘텐츠연구 17』, 동국대학교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2019, 34-35면.
- 송낙원, 「영화제 이론과 평가 방법론에 대한 연구」, 『영화연구(54)』, 한국영화학회, 2021, 200-204면.
- 유창석, 원도연, 「전주국제영화제의 주제의식과 콘텐츠 변화 연구」, 『인문콘텐츠



41』, 인문콘텐츠학회, 2016, 221면.

정성아, 「부산국제영화제의 마케팅과 활성화를 위한 축제의 현재와 미래적 방향에 관한 연구」, 『글로벌 창의문화연구 4』, 극로컬창의산업연구센터, 2015, 57-72면.

조해진, 「도시브랜드와 문화기술」, 『임영문화』, 임영문화연구회, 2017, 17면.

Jodi George, “Examining the cultural value of festivals Considerations of creative destructon and creative enhancement within the rural enviro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Event and Festival Management, 2015, p.132.

■ 기타 자료

국제영화제작자협회, <https://fiapf.org/> 검색일 2021/6/20

칸느영화제 홈페이지,

<https://www.festival-cannes.com/en/qui-sommes-nous/festival-de-cannes-1/> 검색일 2021/6/28

베니스영화제 홈페이지,

<https://www.labiennale.org/en/history-venice-film-festival> 검색일 2021/6/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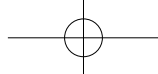
베를린영화제 홈페이지,

<https://www.berlinale.de/en/festival/profile/festival-profile.html> 검색일 2021/6/28

KOFIC뉴스, 〈박찬욱 감독 비롯한 한국영화 감독 5인, 한류영화발전을 위한 재원확보 필요성 토로〉

<https://www.kofic.or.kr/kofic/business/noti/findNewsDetail.do?seqNo=46499/> 검색일 2021/6/7

접수일: 2021.11.6. 총평일: 2021.12.29. 게재확정: 2021.1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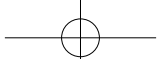


[ABSTRACT]

A Review on the Intention Points of the Gangneu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Cho Haejin(Catholic Kwandong University)

Korea is now joining the ranks of advanced countries in film, and reflecting this situation, large and small film festivals are being held in various forms and contents throughout the country. This paper intends to discuss the points that the Gangneu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hereinafter referred to as GIFF) should pursue as 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The range of the film festival is too wide and there are many targets, so the research range of this paper is to limit the contents covered in this paper to th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to derive the goals that Gangneu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should have to grow into a sustainable and successful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Gangneu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the Gangneu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has to make its Intention points in three parts. First, the identity as 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must be specified. This is almost a prerequisite for successful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and is also the first condition to be recognized for the status of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at home and abroad. In the case of GIFF, it proposed a plan to strengthen the program for films with “original contents like novel, webtoon(comics) etc.” as an extension of this concept, given that it advocates a literature based film



festival and is conducting related programs. Second, since th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cts as a local festival,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venue. In the case of GIFF, it has been centered on Gangneung Art Center, which is somewhat far from other festivals in the region, but in 2021, sharing Venue with Gangneung's representative regional festivals like Gangneung Dano Festival and Gangneung Night Tour were included. Third, consideration for professionals at th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s needed. This is not just a problem of GIFF, but a problem faced by most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supported by local governments for a large portion of the event's cost. Therefore, concerns and discussions on this should be continued to provide a more stable working environment for more professional manpower.

Key words: International Film Festival, GIFF(Gangnue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Film Festival Identity, Film Festival Staff, Local Festival